



◆ **쥬라기 공룡 친구 “올레미아 소나무” 국립수목원에서 살게 된다.**

쥬라기시대에 존재했다가 지구상에서 멸종한 것으로 알려진 ‘올레미아 소나무’가 국내 처음으로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권은오)에 들여와 심겨져 오는 21일부터 일반인들에게 선을 보이게 되었다. 공룡이 번성했던 2억년전에 지구상에 존재했고 지금까지는 화석으로만 그 존재가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공룡 소나무’라고 불려왔던 ‘올레미아소나무’는 10여년전 호주에서 처음 발견된 후 증식에 성공, 국내 한 기업이 경매(2005년 10월)를 통해 얻게 된 것을 지난 2006년 3월 10일 국립수목원에 기증해 심겨진 것이다.

이번에 국립수목원에 심겨진 올레미아소나무(Wollemia nobillis)는 쥬라기시대에 생존했던 소나무를 증식해 얻은 것으로 길이가 약 2cm



▲ 올레미아 소나무

정도 되는 진한 녹색의 바늘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성 침엽수이다. 올레미아 소나무는 자생지에서는 초콜릿색 거품처럼 보이는 껍질을 가지고 있고 최고 40m까지 자라며 대부분 천년 이상 된 나무들이다. 올레미아소나무는 1994년 호주 블루마운틴 세계유산지역내 올레미아 국립공원에서 우연히 발견되었고, 이를 두고 학자들은 “현재 지구상에 생존해 있는 공룡을 발견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그 희귀성을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이 지역에 살고 있는 100여 그루의 올레미아 소나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나무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호주에서는 올레미아 소나무의 보전을 위해 오랜 연구를 거쳐 증식에 성공하였고, 최근 증식된 이백여 그루가 경매를 통해 다른 나라에 보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레미아 소나무 수입업체인 다이노파인에서 라이선스를 가지고 들여와 국립수목원에 기증함으로써 일반인들도 이 희귀한 나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이 진귀한 소나무를「숲의 명예의 전당」앞에 심어두고 수목원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선보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적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이다.

올레미아소나무는 영하 5도에서 영상 45도까지의 다양한 기온에 살 수 있어 적응력이 강하고 실내·외에서 모두 잘 자라 화분이나 분재 혹은 정원수로 키울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공룡과 함께 살았던 식물을 키운다는 의미에서 앞으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문의 : 국립수목원 식물보전과
김성식 연구관(031-540-1053)
국립수목원 생물표본과
이유미 연구관(031-540-1072)

◆ **산림청, 도시숲 / 학교숲 / 가로수 / 고속도로 숲 조성 확대**

— 도시가 아름다워진다 —

자동차 경적소리 대신 새소리가, 회색 콘크리트 벽과 검은색 아스팔트 대신 녹색 나뭇잎

이 도심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도심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

봄철 단비가 적당히 내리고 나무심기에 적합한 계절을 맞아 전국적으로 나무심기가 한창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서승진)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고속도로 숲 등 도시 생활권 지역에 대한 숲조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올 한해 전국 도심과 생활권 지역에 300만 그루의 경관수종을 심고 경북, 호남, 영동 등 우리나라 주요 고속도로 주변산림 1,000여km에도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아름다운 도심조성을 위한 산림청의 도시숲 사업은 전국 지자체 국·공유지 중 방치되어있는 자투리 유휴지나 도심내 소규모 산림을 활용해 도시형 산림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체육, 놀이, 휴게시설 등 기존 도시공원 형태의 인위적 시설물 설치나 조경공사가 아닌 교육, 휴양, 생태를 목적으로 하는 산림 테마공원이다.

도시숲 조성시에는 야생동물, 곤충 등이 서식할 수 있도록 습지나 소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하고 지역민의 애착심을 높이기 위해 조성에서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지역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올 한해 산림청의 도시숲 조성사업은 국유지 3개소, 공유지 81개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268개의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이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과 함께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학교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휴식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8년 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학교숲 조성사업은 올해에도 31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학교숲 조성은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녹색공간을 배치하여 교육기능을 높이고 소음방지, 시각차폐, 온도조절 등의 기능을 최대한 살려 학생들의 집중력과 학습능률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조성한다.

학교숲 조성을 희망하는 학교는 매년 봄에 (사)생명의 숲 국민운동이 실시하는 사업공모에 참여해 심사를 통과하면 가능하며, 선정된 학교는 매년 1천만원씩 3년간 사업비와 학교

숲 조성에 따른 기술지원을 받게 된다. 1999년부터 시작된 학교숲 조성사업은 작년까지 총 866개교에 조성되었다.

이 밖에도 산림청은 아름다운 도심조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함께 올해 약 160억원(국비 47억원)의 예산을 들여 380km에 이르는 신규 가로수를 조성한다. 가로수 조성사업에서는 지역의 기후, 토양, 역사, 문화 등에 적합한, 향토성 높은 수종을 선택하여 심도록 하고, 기존에 식재된 가로수중에서도 생육상태가 불량한 가로수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등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경북, 호남, 영동 등 우리나라 주요 고속도로 구간 중 총 연장 1,072km에 걸친, 700ha의 가시권 산림에 대해서도 숲가꾸기를 통한 경관림 조성으로 도로변 경사면 안정과 도로보호 등의 목적을 넘어 산림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인근 주택가에는 소음과 먼지 등의 도로공해를 완화 시키는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고속도로 숲가꾸기 사업은 작년에 경북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에 대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화 되는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도시숲 조성에 대해 산림청 구길본 자원국장은 “급속한 도시개발로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 녹지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도시숲 조성은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을 확대,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데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밝혔다.

●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고연섭 계장(042-481-4217)
산림청 숲가꾸기팀 임상섭 팀장(042-481-4186)

◆ “녹색도시의 꿈 가로수” 산림청, 가로수 조성·관리 체계화 한다

우리나라의 도로를 수놓는 가로수는 2005년 말 현재 4,065천본에 총연장거리는 28,878km이며, 수종별로는 뽕나무가 25%, 은행나무가 24%, 버즘나무 8%, 느티나무

7%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밥알처럼 하얗게 꽃이 핀다는 말에서 유래된 이팝나무와 꽃향기가 100일간 이어진다는 백일홍에서 유래된 배롱나무가 가장 선호하는 가로수로 각광받고 있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가로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이며 도시녹지 골격을 형성하는 선형녹지로서 경관 개선은 물론 대기 오염 및 소음공해 감소, 열섬화현상 완화 등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20%인 도시에서 도시와 자연을 이어주는 생태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가로수가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최상의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로수는 관리 소홀로 아름다운 경관개선 보다는 많은 사회문제를 낳아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선거철엔 현수막을 지탱 해주는 버팀목으로, 연말연시에는 전열기구를 온몸으로 뒤덮어 이기적인 인간의 눈요기로, 그런가 하면 전깃줄에 닿는다는 이유로 흉하게 잘리어지기도 하고,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토르소(torso)처럼 몸통만 남는 등 가로수의 시련은 가혹하기만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시지역에 아름다운 수형(樹形)으로 사랑받는 가로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가로수 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현행 이원화 되어(국토지방관리청·지방자치단체) 비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가로수의 관리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 하고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령을 오는 8월5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될 법률안에는 신규도로 개설시 가로수 조성을 의무화하고 도로설계시 가로수 식재공간 확보를 명문화 하는 한편 그동안 마구잡이식 전정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가로수 전정부문도 전문가가 실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 되었다.

이와함께 산림청은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시녹지관리단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을 위해 매년 '건강한 가로수 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가로수의 건강성 확보를 위해 토양개량, 비료주기, 양분주사 등 생육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가로수 관리의 근원적인 문제점인 송전선 지중화 작업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가로수 관리체계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로수 조성관리 혁신방안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그동안 잦은 주무부처 교체 등으로 소홀했던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이번 법률시행으로 주무부처로서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도로의 부속물이 아닌 도시의 생명선인 가로수를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 나가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산림청 산림휴양정책과
고연섭 사무관(042-481-4217)
산림청 정책홍보팀
최관목 사무관(042-481-4078)

◆ 제3회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

- 일 정
 - 참가신청 : 2006년 5월 31(수)까지
 - 작품접수 : 2006년 9월 18일(월)~9월 20일(수) / 늘푸른재단 대강당
 - 심 사 : 2006년 9월 29일(금) / 늘푸른재단 대강당
 - 작품전 및 부대행사
2006년 11월 7일(화)~11월 14일(화) / 예술의 전당 디자인미술관
- 참가신청
 - 2006년 5월 31일(수) 오후 6시까지 / 인터넷 접수(우편 방문접수 불가)
 - 대한민국환경조경대전

(<http://gongmo.nulpurun.or.kr>)

- 늘푸른재단
(<http://www.nulpurun.or.kr>)
- 「참가신청 접수증」은 참가신청 접수완료 후, 응모자 기재 이메일로 자동 발송
- 참가비 : 5만원(참가승인 후에는 참가비 반환이 불가함.)
- 참가자격
 -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 또는 팀(5명 이하) 구성으로 하되, 팀별 대표자를 반드시 명기할 것(단 1명이 2개 이상의 작품에 등재되어서는 안 됨.)
- 작품접수
 - 2006년 9월 18일(월)~9월 20일(수) 오후 6시까지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21-11 한솔엠닷컴B/D 16층 (재)늘푸른 홍보팀
 - 9월 20일(수) 소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운송 도중에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

◆ 세조2년때부터 자란 550년된 국내 최고 “철쭉” 나무발견

산림청(서승진 청장)은 백두대간에서 약 550년(국내 最古) 된 철쭉나무를 발견하여 철쭉 노거수(老巨樹)를 포함한 군락지 33ha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로 지정하여 적극 보호하기로 하였다. 백두대간 마루금을 따라 태백산에서 소백산을 향하여 가다가 도래기재를 지나 옥돌봉(1,242m) 아래에 이르렀던 한 폭의 그림처럼 장관을 이루며 펼쳐진 철쭉나무 숲을 만나게 된다. 이 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55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철쭉나무 한 그루이다.

국립수목원에서 철쭉의 나이를 측정한 결과 550년(오차범위 ±30년) 된 것으로 판명된 이 철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키 5m, 뿌리부문의 둘레가 105cm, 가지 폭이 8.3m에 이르며, 세 갈래의 가지는 그 둘레가 각각 64cm, 52cm, 45.4cm로서 인공미가 전혀 가미되지 않아 자연그대로의 신비로움과 경이

로움을 자아낸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정선군 반론산에 있는 200년 된 철쭉(천연기념물 제348호)이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05년 8월 영남알프스인 가지산 철쭉이 천연기념물 제462호로 지정되면서 최고령 나이를 갱신(450년)하였는데 이번에 다시 최고령 나이를 갱신하게 되었다. 이 철쭉이 새싹을 틔울 당시(1456년, 세조 2년)는 성삼문 등이 단종 복위를 꾀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육신 사건’이 일어났던 해이며, 서양에서는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인쇄술을 개발하여 성서를 찍어 내던 시대이다.

철쭉은 주목,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과 더불어 고산지대에 자라는 대표적인 수종으로 이 중에 유일한 낙엽활엽수이자 화목류(花木類)이다. 따라서 이번의 철쭉나무 발견은 국내 최고령 철쭉이라는 의미 외에도 백두대간이 우리나라 국토의 생태 축으로서 생태통로(eco-corridor)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태백산과 소백산의 철쭉 군락지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산림청은 철쭉 노거수(老巨樹)를 포함하여 철쭉나무 군락 보호를 위해 '06. 5. 23. 이 일대 백두대간 능선을 중심으로 33ha(약 10만평)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및 ‘보호수’로 지정·고시하였다. 앞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철쭉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주변 나무 제거, 뿌리경쟁 회피 등을 통해 후계림을 적극 조성해 나가는 한편 하층에 분포하는 처너치마, 각시원추리, 노랑제비꽃 등의 초본식생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김성륜 과장 (042-481-4240)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귀하신 몸!

천덕꾸러기로 취급받아오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이 최근 유가금등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사회, 경제적 분위기 속에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목재가공업체에 이르기까지 대체 에너지 원료 및 산업 원자재로 귀하신 몸 취급을 받고 있다.

우선 산림청(청장 서승진)과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영남)는 25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활용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재선충병 피해목을 우드칩(Wood-Chip)으로 가공함으로써 완전 방제한 후 내년 말 완공 예정인 대구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전국 53개 시·군·구 재선충병 피해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목 중 매년 약 11만 그루가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제공되면, 이를 통해 18천MW의 전력과 46천 Gcal의 난방열을 생산, 44억원의 석유수입 대체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합판보드 생산기업 연합체인 한국합판보드협회도 수입목 대체방안으로 재선충병 피해목을 이용한 산업용 보드 생산을 위해 산림청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고유가 시대에 대체 에너지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은 그동안 재선충병 피해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훈증목을 산지에 적재함으로써 산림의 미관을 해치거나 집중 호우시 물길을 막아 홍수피해를 야기했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난방공사는 기존에 발전소 연료로 사용하던 석유를 재선충병 피해목으로 대체하고, 목재가공업체는 수입목을 재선충병 피해목으로 대체함으로써 에너지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각자의 이해가 적절히 부합되어 재선충병 피해목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산림청은 전년도에 훈증처리하여 산지에 쌓아 놓은 훈증처리목 38만 그루와 올해 추가로 벌채하여 파쇄 예정인 34만 그루를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와 산란기가 지난, 오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말까지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승진 산림청장과 김영남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이번에 체결한 협약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두 기관의 현안문제를 상호 Win-Win 전략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큼니다. 특히 두 기관의 현안문제를 조직내부에서

만이 아니라 외부조직과도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해결해나가는 업무형태는 타 기관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이번 협약의 의의를 밝혔다.

● 문의 : 산림청 재선충병방제과
박도환 사무관(042-481-4076)

◆ 2006 대한민국 환경조경 박람회(LANDEX)안내

최근 삶의 질 향상으로 도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주거공간에 대한 일반인들의 기대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기대에 부응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인간중심의 쾌적한 생활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조경 박람회인 LANDEX 2006이 오는 6월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야외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21세기 친환경개발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아래 자연과 인간의 상생공간을 창출하기 위한 이번 박람회는 녹색공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조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환경조경 부문의 현주소를 알아보고 조경산업의 가치를 조명하게 될 LANDEX 2006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 시 : 2006년 6월 2일(금)~11일(일) 10일간
- 장 소 :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공원 야외전시장
- 개막식 : 2006년 6월 2일(금) 오전 11시
- 주 최 : YTN, 서울시, 11개 범조경단체
- 주 관 : 2006 대한민국환경조경박람회 추진위원회
- 후 원 : 건설교통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 높고 있는 땅에 나무 심으면 조림비 지원합니다.

— 산림청, 8월말까지 ‘산림복원용 유휴토지 전국 실태조사’ —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6월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다락밭, 공한지 등 농촌의 노동력 감소, 이농현상 등으로 수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놓고 있는 토지를 산림으로 복원하기 위한 전국 유휴토지 실태를 조사한다. 또한 이 기간중 유휴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겠다고 신청하면 묘목대금 및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림청의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영농조건이 나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로 조림 후 5년 이내 다른 용도로의 전용 등 토지이용계획이 없는 토지, 2년 이상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을공회당 주변 공한지, 마을 숲이지만 관리되지 않고 훼손된 토지, 하천변/도로변 등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한지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 유휴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 소유 유휴지에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자하는 경우, 시·군(읍·면·동)에 조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연차별로 조림계획에 반영하여 조림이 끝나는 대로 묘목대, 조림 보조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이런 경우 수종선택과 조림작업은 토지 소유자가 자유롭게 실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산

림과 연결해 있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한 토지 등 산림복원 효과가 큰 순으로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번 ‘산림복원용 유휴토지 전국 실태조사’의 목적은 유휴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기후변화협약 및 도교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특히 전국 유휴토지 중 상당수가 과거 산림을 농지로 개간했던 것이어서 유휴지 조림은 생태적, 환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며, 유사시 농지의 기능회복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산림청은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시·군·구 농지부서의 유휴토지 조사자료를 근거로 시·군에서 일괄 조사하며 산림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유휴토지에 대한 연차별 조림계획을 수립, 산림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조림이 필요한 유휴토지를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 권영계 사무관 (042-481-4185)

▶ 전통 마을숲 현장 거닐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은 전통 마을숲 보전 및 그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마을숲의 연구와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2006. 6. 8~9까지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경북 의성의 마을숲에서 “마을숲 현장 거닐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06. 6. 8~9일, 경북 의성에서 『마을숲 현장 거닐기』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삶의 결과’인 전통 마을숲의 보전과 복원 그리고 현대적 가치평가에 대한 실질적 토론을 위해 전국의 전문가들이 현장토론과 주제토론을 펼치게 된다.

이번 모임은 공무원연구모임인 전통숲연구회(국립산림과학원)와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마을숲의 보전과 복원 그리고 현대적 해석에 대한 의견을 교환

〈산림청 유휴토지 조림 권장수종〉

분 류	권 장 수 종
산지과수수종	밤나무, 호두나무,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약 용 수 종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두충,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조 경 수 종	은행나무, 느티나무, 복자기, 마가목, 벗나무, 층층나무, 매자나무, 화살나무, 당단풍, 산딸나무, 쪽동백, 이팝나무, 채진목, 때죽, 가죽나무, 낙우송, 회화나무, 칠엽수, 향나무, 팽팽나무
특 용 수 종	울나무, 다릅나무, 쉬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당풍나무, 고로쇠, 느릅나무, 동백, 황칠, 후박나무

함으로써 폭넓고 다양한 신진 연구자들과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마을숲 현장 거닐기”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전통 마을숲의 조성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마을 주민의 생활과 문화 속에서 보전되어 왔다. 현재 확인된 곳만 전국적으로 약 400개소 이상이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한국의 전통생활환경보전림’ (1995, (구)임업연구원)을 발간한 이래 매년 지속적인 현장 발굴과 생태·문화·역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전통 마을숲은 현대 도시생활 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생활숲의 한 모델로 그 가치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마을숲은 생활환경 개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파괴되었으며, 도시화·현대화 과정에서 마을은 해체되고 마을숲도 그 기능을 점차 상실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전통 마을숲은 마을 주변의 “산과 물 그리고 바람의 어울림”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 한 역사의 산물이다. 아울러, 마을숲을 가꾸기 위해서는 마을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에도 훼손·방치되고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잔존 마을숲의 실태 파악과 보존 혹은 보전에 대한 결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실정이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권진오 박사는 “전통 마을숲을 올바른 길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과 지자체, 학계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마을숲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복원과 보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등 폭넓은 의견교환과 정보공유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강조하였다.

● 문의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과 권진오 (02-9612-612)

◆ 산림청, 산림병해충 집중방제 추진

— 산림병해충 집중발생기(6.1~8.31) 병해충 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산림청에서는 각종 산림병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전국 산림관서에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방제에 착수

한다.

산림청(청장 서승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참나무류, 벗나무 등 각종 활엽수림에서 참나무재주나방, 참나무겨울가지나방, 갈무늬재주나방 등이 크게 발생하고, 솔잎혹파리 피해가 지역적으로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흰불나방, 잣나무넓적잎벌, 오리나무잎벌레 등 다양한 산림병해충의 집중 발생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산림병해충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항공관리소 등 전국 297개 산림관서에 『산림병해충 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방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방제대책본부에서는 병해충 발생조사, 방제계획 수립 및 방제실행,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지도, 항공방제용 헬기를 지원하고, 아울러 방제 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병해충을 조기발견·적기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정광수)에서는 돌발병 발생상황을 신속히 파악, 발생예보 발령, 병해충 관련 민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기동진단반을 운영하며, 각종 산림병해충 진단·처방을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과 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나무병원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병해충 집중발생 기간중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나방, 흰불나방, 잣나무넓적잎벌, 오리나무잎벌레 및 참나무재주나방·참나무겨울가지나방 기타 돌발병해충의 지상 및 항공방제 등 연 276천ha(사업비 338억원)를 방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방제에 따른 안전사고 및 주민 피해예방 등을 위한 산림 당국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국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줄 것을 특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문의 : 산림청 재선충병방제과 조성래 사무관(042-481-4064) 